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경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축
2014. 7. 7.(월)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4. 9. Vol 230

Contents

- 02 개원사
- 04 축사
- 06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08 제333회 임시회
- 09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문
- 10 제10대 의회 구성도
- 12 부의장·상임위원장 의정 각오
- 15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2 주요처리의안
- 23 대집행부 질문·답변
- 24 5분 자유발언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일기

- 발행일 2014년 9월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화 (043) 220-5123 ● FA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언 구 의장



개원사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4년의 주인공이 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북도의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려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먼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10대 의회의 발걸음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충북의 찬란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엄중한 메시지를 받들어 제10대 의회가 도민의 희망이 되고 진정으로 품격 있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든든한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 나겠습니다.

이번 제10대 의회는 전례없이 참신성과 경륜, 전문성과 다양성의 공존으로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의정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일보한 형태를 토대로 곳곳에서 쏟아지는 도민의 목소리를 한 치의 왜곡 없이 오롯이 담은 단단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둘째,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로 의회다운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주요한 권한 중 하나는 집행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되,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견제하겠습니다.

셋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희망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충북비전의 산실이 되고 의원 한 명 한 명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략가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은 물론, 10년, 20년 뒤 충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간절한 바람에 저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한 표 한 표에 호소하던 그 뜨거운 마음자세로 도민을 감동시키는 한 차원 높은 의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과 융합으로 충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이 모든 일에 저부터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질책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7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민규

충북도와 도의회는 영충호 시대 여는 동반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오늘 충북도민 행복시대를 함께 이루어 가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아 등원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이며, 도의회의 목소리는 소중한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저 또한 도민들로부터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의 책무를 부여받은 도지사로서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의회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도정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에 맞는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 통합청주시의 명품 도시화, 청주공항의 전국 5대 공항으로 정착 등 핵심 현안들을 슬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저는 민선6기 행복도지사로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정의 제1목표를 도민행복에 두고 그동안 다져온 경제1등도의 기반 위에 앞으로는 안전, 복지, 문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 '세계로 향하는 창조 경제' 구현, '균형발전 및 함께하는 충북' 실현, 안정충북, 열린도정, 소통행정의 도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00년간 서울에만 머물러 있던 국가권력이 충청권으로 대이동하는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우리 충북을 풍요와 기회의 땅으로, 신수도권의 중심, 세종시의 관문,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낡은 틀을 과감히 깨버린다는 비장한 각오와 굳건한 결의,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함께하는 충북'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도지사는 물론 각계·각층이 다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는 160만 도민의 목소리이며, 여러분의 뜻이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늘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는 민선6기 충북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도정이 어려울 때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동반자 역할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제10대 충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160만 도민과 함께 경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북교육 행복한 변화위해 도의회 대안 수렴



김 병 우
(충청북도교육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출발 앞에서 우리는 늘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푸른 생명의 빛이 온 산하에 가득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의 새 막이 힘차게 올랐습니다.

충북 발전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

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희망찬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북 교육가족 모두와 더불어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함으로써 본도의 지방자치는 물론, 교육자치도 그 동안 이루어 놓은 튼튼한 반석 위에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 충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의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5대 시책을 정하여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며 교육거버넌스, 소통하는 교육감,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등 모든 교육 주체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로 수업·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체제로 전환하고 교실 수업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으로 문화·예술 체험활동 확대, 지역교육청 단위 문화·역사·예술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 함께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습준비물 지원, 교복비 경감 등 의무교육의 사부담 공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 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으로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초록학교 운영,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등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공존·공생 가치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어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행복한 교육'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충북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 충북교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



7월 7일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출범

충북발전을 선도할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 다짐

책임있는 견제 ·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로 의회의 참모습 보여줄 터

충청북도의회는 7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전직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각 단체장, 집행부 실·국·원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서 31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5기까지 쌓아올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물들과, 그동안 연구 · 노력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민선 6기’도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이언구 의원을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7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봉희 의원과 박종규 의원이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실시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장에 박한범 의원, 정책복지위원장에 박봉순 의원, 행정문화위원장에 임희무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이양섭 의원,



건설소방위원장에 박병진 의원, 교육위원장에 윤홍창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엄재창 의원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연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선의 기쁨에 앞서 충북의정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엄숙한 순간에 도의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다수당이나 소수당을 초월해 소통·화합하는 의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몸을 낮추고 더 낮은 곳에서 오직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0대 도의회 운영방향

제10대 충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의회상 정립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희망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내세우며 도의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우선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운영방향 첫번째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곳곳에서 쏟아지는 도민의 목소리를 한 치의 왜곡없이 오롯이 담은 단단한 그릇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두번째로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로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집행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임을 직시하여 지역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견제하여 힘있고 강한 의회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했다.

도의회는 세번째 운영방향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희망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충북비전의 산실이 되고, 의원 한명 한명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략가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이다.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지만, 충북지역의 이익앞에서는 언제나 하나가 되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과 융합으로 충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의회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상반기 업무보고,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의결

도교육청 추경예산, 혁신학교 관련사업비 3억 8,000만 원 삭감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새롭게 출발한 제 10대 충청북도의회가 7월 16일~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또한 김양희 의원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해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지적하고 임회무, 이광희, 이광진, 이숙애, 강현삼, 윤홍창, 임헌경, 장선배, 박한범, 김학철, 박우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도의원들의 5분 발언으로, 이 같은 5분 자유발언 수치는 제10대 도의회가 도정시책, 주민복지 등에 관한 의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이언구 의장의 기

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정책조율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결과도 가져왔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간담회 및 현지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는 기정예산 1조 9,934억 2,831만원에서 1,556억 7,265만 2천원 증액된 2조 1,491억 96만 2천원으로 편성·제출하였으나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타운미팅 등 2건에 대해서는 3억 8,009만 원을 삭감했다.



FTA체결 관련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충북도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이번 건의문을 낸 것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FTA 파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린 농어촌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의회는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국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라고 명시하고 “그러나 FTA 체결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

대 축산 강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이며, 또한 현재 중국과 수차례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문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국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Made in Korea’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볼 때면 참으로 가슴 벅차고 애국심이 절로 발양(發揚)됩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FTA 체결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이고, 또한 현재 중국과도 FTA 체결을 위해 수 차례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 장
이 연구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의회운영 위원회	 박한범 의원	 윤은희 의원	 김학철 의원	 박우양 의원
정책복지 위원회	 박봉순 의원 (청주 8)	 박한범 의원 (옥천 1)	 박종규 의원 (청주 1)	 임병운 의원 (청주 10)
행정문화 위원회	 임희무 의원 (괴산)	 임재창 의원 (단양)	 김영주 의원 (청주 6)	 연철흠 의원 (청주 9)
산업경제 위원회	 이양섭 의원 (진천 2)	 김학철 의원 (충주 1)	 김인수 의원 (보은)	 박우양 의원 (영동 2)
건설소방 위원회	 박병진 의원 (영동 1)	 임순묵 의원 (충주 3)	 강현삼 의원 (제천 2)	 김봉희 의원 (증평)
교육 위원회	 윤홍창 의원 (제천 1)	 정영수 의원 (진천 1)	 김양희 의원 (청주 2)	 이광희 의원 (청주 5)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임재창 의원 (단양)	 박우양 의원 (영동 2)	 강현삼 의원	 김인수 의원  박봉순 의원



부의장
김봉희



부의장
박종규

위 원



엄재창 의원



이광진 의원



이숙애 의원



임순묵 의원



정영수 의원



최병윤 의원



장선배 의원
(청주 3)



최병윤 의원
(음성 1)



윤은희 의원
(비례)



최광욱 의원
(청주 4)



이의영 의원
(청주 11)



황규철 의원
(옥천 2)



이광진 의원
(음성 2)



임현경 의원
(청주 7)



이숙애 의원
(비례)



이종욱 의원
(비례)

충청북도의회 전화번호	
의 장 실 신관6층(F.5009)	220-5000~02
부 의 장 실	220-5003~04
비 서 실	220-5005~08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신관5층(F.5019)	
운 영	220-5010~15
입 법	220-5171~73
정책복지위원회 신관7층(F.5029)	220-5020~24
행정문화위원회 신관4층(F.5039)	220-5030~35
산업경제위원회 신관7층(F.5049)	220-5040~44
건설소방위원회 신관2층(F.5059)	220-5050~55
교육위원회 신관3층(F.5069)	220-5060~65
의회사무처장실 신관6층 비서실	220-5100~02
총무담당관실 신관6층(F.5119)	220-5110
총무팀	220-5111~17
홍보팀	220-5121~29
의회자료실	220-5187
의사담당관실 신관6층(F.5159)	220-5150
의사팀	220-5151~55
기록팀	220-5161~70 220-5196~97
본회의장	220-5185



박한범 의원



연철흠 의원



윤은희 의원



이종욱 의원



임현경 의원



장선배 의원



정영수 의원



황규철 의원



의정역량 강화로 의회 위상 높일 터



김 봉 회 부의장

도민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으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도의원으로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앞으로의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역량을 강화시켜 도의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충청북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의 반영해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박 중 규 부의장

먼저, 부족한 저를 10대 도의회 상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권 등을 부여받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자(孔子)도 논어 안연편에서,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 것도 바로 설 수 없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정치의 으뜸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중한 자성의 물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동안 생활현장 속에서 민의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160만 충북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회 내부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를 막론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화 모색



박 한 범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제10대 상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어떻게 하면 충북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충실한 도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회의규칙과 의회관련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조정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관리하여 의정운영을 내실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산재해 있는 지역현안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각 위원회와 협력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정운영이 되도록 생산적인 비판과 견제 속에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도민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 도정에 반영



박 봉 순 위원장
(정책복지위원회)

제10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정책복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는 「안거낙업(安居樂業)」이란 고사성어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도정의 종합적 기획을 담당할 뿐만 아

니라, 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보건·복지 분야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숨어있는 욕구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원칙에 따른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정책복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행복 꽃피우는 행정문화위 운영



임 회 무 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도민의 안전, 행정 전반에 대한 조정, 문화관광의 진흥 등 도정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여 견제·감시기능 뿐만

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마련과 정책제시에 중점을 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괴산군청과 충북도청 등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훌륭한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도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도민의 안전을 먼저 돌보는 「함께하는 의정구현」이 되도록 하여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의 행복이 꽃피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충실한 민의(民意)의 대변자가 되어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견인 노력



이 양 섭 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국내외 경기침체와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160만 충북도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저는 도민의 애정 어린 충고에 귀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활기찬 농촌 건설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오를 다짐합니다.

첫째, 농촌·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이촌향도(移村嚮鄕)가 아닌 농촌으로 귀농하는 활기찬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소외지역에 기업유치, 시·군의 산업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안전한 충북건설에 우리 위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 위한 건설소방위 운영



박 병 진 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북지역의 균형발전 및 바이오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집행부와는 건강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충북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건설소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백년 이어나갈 교육정책 수립



윤 흥 창 위원장
(교육위원회)

먼저 교육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60만 도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을 기억하며 중책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또한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백년을 이어나갈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협력의 교육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한 분 한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셋째,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망설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교육정책이 시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160만 충북도민 모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집중과 선택으로 예산 효율성 높일 터



엄 재 창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10대 1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최종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양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민복지 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

도 있고 책임 있는 심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변화하는 지방재정운용환경과 제도에 걸맞게 인식을 새롭게 하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히 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집중과 선택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존중과 소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33 임시회

의원 연구·연찬 등 입법활동 적극 지원



7월 17일 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제334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7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강호동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도의회의 위상제고와 상시 연구하고 연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독립 및 위원회 사무실 정비, 예산집행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날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 주요 내용은 대집행부 질문 및 의안심사, 201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의원 연구활동을 위해 장선배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취약계층 아동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청주시를 중심으로)’에 3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광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 5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원 연구활동은 8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며 장선배 의원의 주요 연구 목적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 실태, 복지욕구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현실, 올바른 성장저해요인 파악, 아동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수준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광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주요 연구 목적은 충청도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현황파악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로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업무추진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위원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발전연구원 및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차원의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 마련 △도내 향토음식거리의 전국 명소화 추진 △지하수 사용 음식점에 대한 철저한 수질 검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기획관리실 등 4개 부서의 보고를 받은 제2차 위원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다른 광역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공조 모

색이 필요하며 이에 충북이 총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 국비예산 확보 철저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보급, 오송역세권 개발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통합청주시의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총 10개 조례에 명시된 종전의 도직속기관 소재지 및 소방서의 관할구역, 복지시설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7월2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충북3.0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구축의 단일 시스템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을 방문해 현장 시찰과 함께 보고를 받고, △도립대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학과개편 및 신설 재검토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탈락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등을 주문했다.



7월22일 목전에 위치한 충북도립대를 방문해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33 임시회

충북체육 위상 제고 · 안전대책 요구



7월 17일 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기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임희무 위원장은 3개 체육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선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충북체육의 위상강화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격려와 당부했다.

엄재창 의원은 자치행정과 보고에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취미교실과 같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안전총괄과 보고에서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119수상시민구조대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중복요소가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끼리 협의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

했다. 연철흠 의원은 체육과 보고에서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초차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전지훈련터를 유치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먼저 충북체육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시설확충 등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은희 의원은 3개 체육회 방문에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진출에 충청북도 장애인 체육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옥 의원은 문화예술과 보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교황이 방문한 도시는 많지 않다”고 강조한 후 “단순한 방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교황이 다녀가셨다는 사실을 스토리텔링화해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먼저, 7월 21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면서,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가 2007년부터 조성중인 사업임에도 그동안 사업면적 규모를 축소하였는데 이 부지에 인근 국유림 지역을 제외하고 우량농지를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에 조성중인 산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에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얼마 전 내린 비로 인해 인근 농지가 침수하는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중소기업종합센터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사업지구를 분할한 이유 등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에코폴리스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과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북도의 미래 전략산업이 항공관련 산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전문가 활용을 통해 MRO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충북도의회의원 모두가 강력히 건의하는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7월 21일 위원회를 열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33 임시회

빈틈없는 신 발전지역 개발사업 요구



7월 21일 위원회를 열고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하반기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균형건설국에 업무보고에서는 신 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사업이 남부3군, 괴산, 단양, 제천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사업초기 지역주민의 기대가 컸으나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저입찰제로 인해 지역건설업체가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일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혁신도시 산업용지 분양실적이 24%에 불과하고, 클러스터용지 분양실적 또한 17%에 그쳐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바이오환경국 업무보고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환경정책과와 소방본부가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속리산·월악산에 배치되어 있는 '산악전문이용소방대'가 산악사고 예방과 대응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산악지대가 많은 단양지역에도 추가 창설해 단양지역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안전확보를 당부하는 한편, 충주소방서 위치가 충주시 외곽지역에 있어 시내 중심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119안전센터를 충주시 연수동에 배치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관람객과 입장권 판매 실적보다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수출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윤홍창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TF팀 운영 계획에 대해 기존에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생각을 밝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조직구성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에 대하여 지적했다.

또 김양희 의원은 전체적으로 주요사업 추진이 50% 미만인 점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광희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숙애 의원은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이나 추진사업이 부진함을 지적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이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충북체육고등학교 합동훈련장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한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공사 현장을 찾아 도교육청 및 충북체육고등학교 관계관으로부터 합동훈련장 설치계획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대상 부지를 둘러보았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표결을 거쳐 학교용역 및 혁신학교 운영,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타운 미팅,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등 3건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반영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예비혁신학교의 문제점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7월 21일 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3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의



7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는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934억원 대비 7.8%인 1,557억 원이 증액된 2조 1,49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치단체 증가분, 지방교육채 증액분과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산한 것이다.

또한,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예산 성립전 집행액 반영, 교육복지서비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에 투자를 하고 학교폭력예방, 학교체육선진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마이스티고 육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진학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시이월사업 총 12건에 300억 원이 편성된 사유와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후 추경에 재 계상된 13건에 대하여 재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했다.

특히,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업이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타운미팅,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하여 사업의 철저한 검토가 결여된 줄속 추진 등에 대하여 질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예결위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운영 3억 1,009만원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타운미팅 7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건 3억 1,00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도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 등을 거쳐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32 · 333회 임시회

[제332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구성목적 :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3명 이내

[제333회 임시회]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가 설치됨에 따라 별표 1의 “가. 학교군 및 중학구 일람표” 중 기존 청원군 1개 학교군과 9개 중학구를 청주시에 통합하여 5개 학교군과 9개 중학구로 변경하여 소속지역 명칭 변경
- 별표 1의 “나. 타시도 전입생 중학구”의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학구와 오창중학구의 소속지역 명칭 변경
- 별표 1의 “다. 타시도 전출생 중학구”의 대전 동부8학교군, 세종 조치원학구, 세종 연동학구, 충남 병천학구의 소속지역 명칭을 변경하고, 세종 부강학구를 신설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현행 조례상 도 직속기관의 소재지 및 소방서의 관할구역, 복지시설 등의 위치를 청주시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일괄개정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10개 조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 면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3개교(원))
- 충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4개교(원))
- 건물번호 신규 부여에 따른 주소 변경(6개교(원))
-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140개교(원))
-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9,934억 2,831만원에서 1,556억 7,265만 2천원 증액된 2조 1,491억 96만 2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0억 3,556만 1천원, 자체수입 94억 5,981만 1천원, 차입 39억 1,503만 5천원, 전년도이월금 512억 6,224만 5천원 증액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464억 3,763만 9천원, 평생·직업교육 8억 6,488만 6천원 증액 계상, 교육일반 83억 7,012만 7천원 증액 계상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2년) 삭제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임규정 조정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제한 규정 삭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 별표 1 중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및 별표 2 중 청원도서관의 주소를 변경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중한 인사운영 요구



김 양 희 의원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관련

[질문] 민선6기 충북도를 이끌 도정철학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정방향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 복지, 문화, 예술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도정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민선5기 공약 가운데 102개 사업 중에서 단 한건만이 미진하고 나머지는 사업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계속사업으로서 민선6기에 지속될 사업은 일단 완료 개념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완료라기보다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질문] 퇴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여성 공무원을 안전행정국장에 임명했습니다. 업무 파악하다가 임기가 끝나는데 왜 이러한 것을 간과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당 공무원이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을 담당하는 그 직위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인사발령 했습니다.

[질문] 지사의 정실인사나 코드인사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6개월 후에는 모 국장을 안전행정국장에 임명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앞으로 6개월 뒤에 있을 인사에 있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질문]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그에 따라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질문] 세간에서는 초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 교육감의 이념편향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대에 대해서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우려에 대해서도 우려를 털어드리고 다시 그것이 안심과 새로운 기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성화초에서 열린 집단지성 타운홀 미팅에서 “제 공약은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든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알차다. 수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공약은 전교조 정책실에서 나오는 자료를 포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캠프에 정책실과 기획실에서 다듬고 만든 것입니다.

[질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법적 판결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인수위 출신 교사 8명을 파견해서 행복교육 TF팀, 4명을 파견해서 학교혁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도교육청 내부의 견을 무시하고 파견을 강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파견교사 중에서 장학관 공모하고, 장학관 전직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육적인 행위 아닙니까?

[답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파견교사들을 바로 학생들 앞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임무를 다한 뒤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여야 상생의 길로 의정 힘써야



임 회 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본 의원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가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 도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여 충청북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

당과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도의회에 파열음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발은 서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야가 상생의 길을 찾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의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60만 도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상생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160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호흡하여 160만 도민을 위한 정책에 함께 힘써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



이 광 희 의원
(교육위원회)

저는 사상 초유의 충북도의회 원구성 파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연구 의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연구 의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당 싸늘이 의회라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당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누리당 독식 의회를 만들도록 한 최종 결정자였습니다.

셋째, 충북도의회를 운영해갈 능력도 원칙도 없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이연구 의장의 모습은 무능함과 무책임함의 극치였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사태를 파국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이연구 의장은 사퇴하십시오.

원구성이 무엇입니까? 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모든 회의 결과는 독식한 정당의 의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적 운영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화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충북지역 우박피해의 합리적 지원



이광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지난 6월 10일 저녁 충북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그리고 청원군 등 도내 곳곳에 농작물 피해규모가 상당히 심각하여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약 1시간가량 쏟아진 우박으로 복숭아, 벼, 참깨 등의 작물과 열매 등이 상처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면적의 88%가 음

성지역에 집중되어, 음성군의 농작물 피해는 총 1,005농가에 853.5ha로 특히 과수, 담배, 고추를 주요 작물로 하는 삼성면과 금왕읍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당초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정밀피해조사사가 이루어진 후 2~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선지원·후정산을 통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특별용자금 지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한 예비비사용, 재난지원금 조기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적극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합의의 정신이 필요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원 구성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개원일까지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개원만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의를 우선시하여 의장 선출과 개원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새누리

당이 독식한 충북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돌아왔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은 주민이 뽑아준 의원 개개인이 대의기관으로서 합의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10대 충북도의회는 새누리당의 의사만 반영한 원 구성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충북도의회가 싸우는 의회가 아닌, 건전한 논쟁과 경쟁을 통해, 정책으로 승부하고, 합의와 상생의 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절대 용납 안돼



강 현 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선거개입이 여전히 만연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기간이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들의 선거개입, 정치중립 등 이들의 직·간접적 선거에 개입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때로는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단체장의 비서실장이 정책질의서를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서를 작성토록 하고, 통장회의를 개최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등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현행법상으로 설령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절대금액을 충청북도가 출자하여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써 도민에게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단의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촉구 합니다.

혁신학교 추진 재검토 촉구



윤 흥 창 의원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추정 심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일부인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고 예산 심사가 있기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설명도, 협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시행

되었던 혁신학교에 문제점인 학생들의 학력저하, 사교육비 증가,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 예산의 고갈, 특정 교원단체의 거점화에 대한 우려, 교사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인 박탈감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남에도 오직 타 지역 혁신학교 따라하기 급급한 나머지 교육계와 학부모, 도민들에게 한번도 합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나타나는 혁신학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취합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크게, 부정적인 측면은 작게 축소시켜서 교육 주체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모두 다 행복한 충북 교육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불통을 멈추고 혁신학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칙 바로 세우는 도의회 돼야



임 현 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10대 도의회는 원구성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출발부터 파행, 당파싸움 혈안, 새누리 싹쓸이, 여야 따로, 예산 싹뚝, 보혁갈등”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용어가 개원 초부터 내내 언론·방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파국은 당초 원구성과 관련하여 소통과 타협의 통큰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하는 이언구의장의 정치력과 조정력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부터 예결위원 배치까지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보란 듯이 이언구 의장은 싹쓸이 어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의회분위기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10대 도의회 슬로건과는 달리 개원 초기의 열정, 기대감, 그리고 왕성함은 작아지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도의회 원구성 의석수를 당선의원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당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원구성 자동배분에 관한 조례’등 원구성 시스템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 싹쓸이’에 의회기능 잃어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오늘, 저는 충북도의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들에 대해 ‘비정상적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10대 의회 원구성의 비정상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싹쓸이에 이어 예결특위에 자당 소속의 상임

위원장 2명을 선임, 소수의 직책 독점을 막고 평의원에게 고루 의정 참여 기회를 주자는 불문율을 깨뜨렸으며, 같은 당 소속의 같은 지역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을 저해했습니다.

둘째, 도의회의 정당 예측성 심화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 독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민선 5기 실정을 파헤칠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당의 명령’에 따른 ‘정치특위’로 도의회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 보혁 대결구도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충북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에서 ‘혁신학교 추진’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낡은 이념의 대결구도를 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며...



박 한 범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예결특위 위원에 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정연의원들이 ‘새누리당의 자리 욕심에서 비롯된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부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신뢰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거나 않을까 하는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어느 의원이 상임위의 중복활동으로 시간을 뺏겨가며 자신의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겠습니까?

자리욕심이라니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셋째, 양당간 협의와 대화의 장을 외면한 채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코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충북교육 혁신학교가 필요하다



이 광 희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학교를 다녀보면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선생님과 학교를, 그리고 교장과 교감까지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교육 문제는 모르겠고 오로지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만은

못하게 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을 하면서 보아온 충북교육에는 혁신학교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은 혁신학교를 추진하기로 부산교육감과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일부 새누리당 단체장 후보들이 혁신학교 유치를 공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혁신학교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우리도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을



김 학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내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가 진행된다면 국내 쌀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민적 갈등과 합의를 거쳐 의무수입물량(MMA)의 증량을 감내하면서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던 것이고, 이제 2차에 걸친 유예협상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관세화냐, 아니면 또 다시 의무수입물량의 증량이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국민세금 24조 9,000억 원을 농가에 투입하며 우리 농업과 쌀 산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쌀의 가격 경쟁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당시 5~6배에 이르던 것이 2013년 현재 2.1~2.8배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쌀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유지와 재해 방지 및 보상 확대, 각종 농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박 우 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작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세입 규모가 열악한 영동, 보은, 옥천과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개 지역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불균형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20여년 간 상생 발전해 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도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7월 7일 제10대 도의회 개원식에서 전체 도의원,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도교육감, 전 도의원, 각 단체, 집행부 간부들이 힘찬 전진을 외치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14년 7월 22일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조성현장」을 방문해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조성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7월 17일 의안처리에 앞서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한 충북체육고등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8월 12일 중국길림성인민대표대회 왕일보 비서장을 반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이 우호교류 협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상호 우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8월 12일 이언구 의장이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훈련중인 "제449회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8월 13일 이언구의장을 비롯한 박종규부의장, 박봉순·이양섭 위원장, 장선배·임병운·이의영·이숙애 의원 등 도의원들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기공식"에 참석해 발전을 기원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2014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7월 9일 이언구 의장이 의정활동 첫 행보로 이례적인 기관방문을 떠나 11남매를 키우고 있는 청주시 남이면 문동리 김학수씨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박종규 부의장
(정책복지위원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 밀알 되고파!

도의원 당선에 이은 부의장 선출이라는 기쁨과 축하에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 청주 제1선거구 주민들이 보내준 사랑에 더하여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으로서 160만 도민이 다시 보내준 사랑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를 다시 초심에 서게 한다.

지난 30여 년간의 교사 생활과 제8대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 경험, 40여 년간 충북 적십자사, 충청북도공동모금회,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功勞)로 청주시 문화상, MBC 충북문화시민상, 대통령 표창과 포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60여 년간의 여정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던 나의 소중한 도민들에게 그들의 뜻을 더욱 깊고 넓게 헤아려 그들의 고귀한 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의정생활의 목표를 소외되고 고통 받는 주민들을 보살피고 더 나아가 공부하는 의원, 봉사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다. 또한, 도민 행복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직이라고 생각한다. 시·군의회와 도의회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의회를 구현해 보고 싶다.

우리 속담에 ‘천인이 찢으면 천금(千金)이 녹고, 만인이 찢으면 만금(萬金)이 녹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나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충북은 경제신화를 창조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 청주공항의 전국 5대 공항으로의 정착,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160만 도민의 지혜와 힘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도민들이 내 가슴 언저리에 달아준 의(議)가 새겨진 작은 배지에 4년 후 주민들을 위해 노력했고, 열정을 불태운 議로, 내 스스로에게도 한 치의 후회도 없는 의정활동을 한 ‘議’로 다시 새기고 싶다. 도민들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저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도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권 등을 부여받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 것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공자(孔子)의 말씀이 축축하게 내 가슴을 적신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의 존재가치 또한 도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으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막중한 책무 또한 마음에 새겨본다. 설렘과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나의 4년간의 의정활동이 이웃에 대한 봉사 와 세상을 향한 보람으로 충만하길 소망해 본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약속드리며.....



윤은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떨리는 마음으로 충청북도의회에 등원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많은 정당활동을 해왔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더욱더 떨리게 했다.

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초선의 입장에서서는 많은 부담감이 느껴졌다. 첫 의회활동을 앞두고 책상위에 쌓여진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많은 책자를 보고 놀랐다. 의원의 활동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읽어야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어렸을적 신입생 시절이 생각났다. 새로운 교과서와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설렘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나를 뽑아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는 한편, 내가 정말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혼재되었다.

문득 공자가 지은 논어의 위정(爲政)편(22)에 나와 있는 “人而無信(인어무신), 不知其可也(부지기가야), 大車無輓(대거무예), 小車無軌(소거무월), 其何以行之哉(기하이행지재)”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람에게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만일 큰 수레에 소의 멍에를 댄 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말의 멍에를 걸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다.

그렇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가 없으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말이다. 정치인의 말은 곧 정치이다. 정치란 사람을 기대하게 하

는 것이며, 그 기대는 자신이 천명한 말을 지키는 것으로서 확대 재생산시켜야 한다. 즉, 도의원은 유권자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되새기며 나는 좀 더 주민이 신뢰하는 도의원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집행부에 업무보고와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나의 의정활동은 시작되었다. 궁금한 도정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도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에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다. ‘내가 과연 주민을 위해 의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공자는 논어의 陽貨(양화)편에서 “性相近也(성상근야), 習相遠也(습상원야)”라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의 선천적 자질은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다 해도 극복가능한 수준이고, 학습과 교육 등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점점 큰 차이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즉, 자질보다는 노력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도록 강요당해도 좋은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하는 믿음’이다. 나 자신의 자질은 보잘 것 없을 지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된다면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말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나는 감히 160만 도민에게 약속드릴 수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